

기아 광주공장 ‘EV5’ 성공적 양산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하반기 첫 전용 전기차 생산...생산·배터리장착 라인 구축
임직원들 “차질 없는 양산일정 준수·완벽한 품질” 다짐

기아 오토랜드광주 임직원들이 올 하반기 더 기아 EV5(The Kia EV5) 생산을 앞두고 완벽한 품질 관리와 차질 없는 양산 일정 준수 등을 다짐하고 나섰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난 10일 1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 공장 최초로 생산되는 전용 전기차 EV5 출시에 앞서 완벽한 품질과 양산 일정 준수 등을 약속했다.

결의대회에서는 EV5 추진 경과보고를 통해 EV 5 신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양산을 기원하는 직원들의 염원이 담긴 응원 영상 시청, EV 5 성공 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EV5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EV5 출시 전까지 양산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들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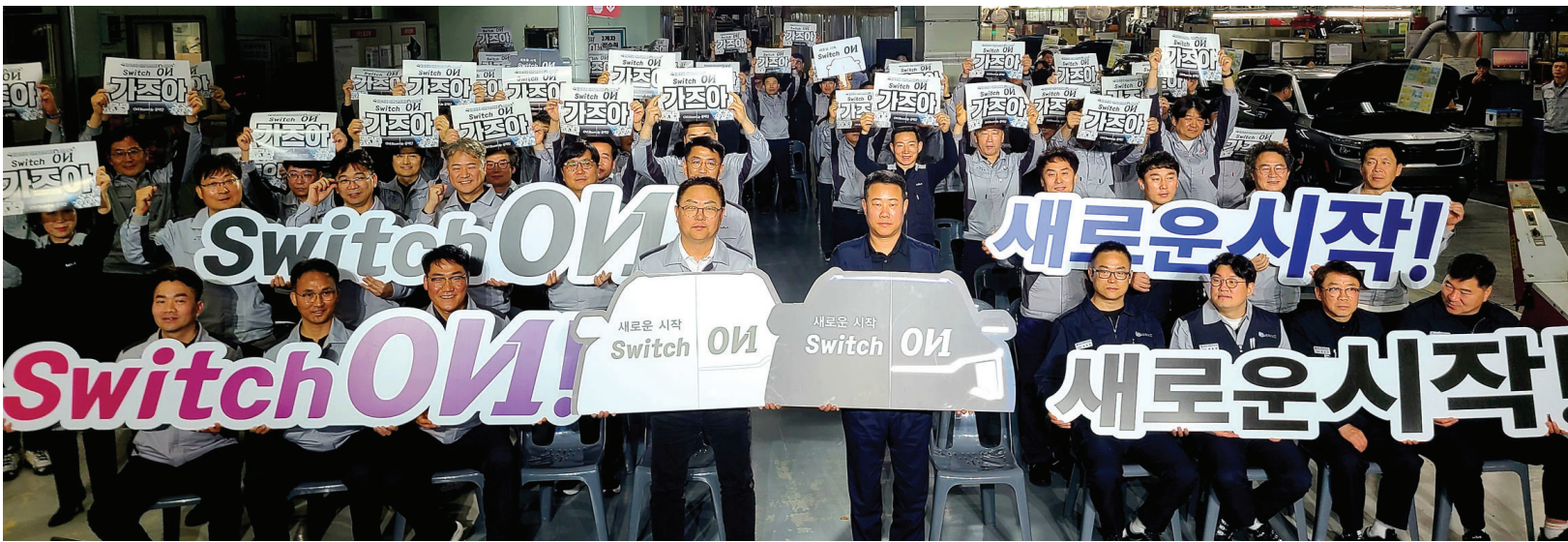
문재용 기아 오토랜드광주 공장장은 “EV5가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전용 전기차인 만큼 완벽한 품질과 양산 일정 준수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EV5 신차분을 일으켜 EV5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광주가 생산하게 될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EV5’는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 이후 EV9, EV3, EV4에 이어 기아가 국내 시장에 5번째로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모델이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EV5’를 올 하반기 광주 1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으로, 현재 EV5 생산라인과 핵심인 전용 배터리 장착 공정 라인을 구축하고 실험 생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V5는 특히 국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스포티지 급’ 크기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소비자



문재용(사진 앞줄 왼쪽) 기아 오토랜드광주 공장장, 은용철(사진 앞줄 오른쪽) 기아 노동조합 광주지회장 등 기아 임직원들이 10일 '기아 오토랜드광주 EV5 신차 성공다짐 결의대회'에 참석해 신차 성공 기원 손뼉을 들고 있다.

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로젝트명 ‘OVI’으로 개발된 EV5는 EV3·EV4와 함께 기아 EV전용 시리즈 가운데 핵심 작품이

다. 특히 기존 EV9과 디자인·기술적 특성을 공유하고,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춘 미래형 전기차 모델이라는 점에서, 생산이 본격

화되면 판매량 급증 등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금융연 “지방 미분양 주택, DSR 규제 완화로 해결 안된다”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가 원인

PF 정상화·공급관리 대책 필요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만으로는 심각한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와 거시전전성 감독 차원의 금융정책 대응’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 분양가 급등, 공급과잉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약세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해 지난 2월

말 기준 2만3722호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미분양의 33.7% 수준이다.

연구원 패널회귀분석 결과, 주택공급 증가율, 재고 주택 가격 대비 신축 분양 가격 비율, 시장 금리 등이 전체 미분양 주택 증가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주택공급 과잉과 높은 분양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신 선임연구원은 “지방 미분양과 약세 미분양 증가의 주된 원인이 공급과잉과 고분양가로 인해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인 데 있음을 고려하면 DSR 규제 완화만으로 유효한 주택 수요로 연결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2024년 말 기준 ‘지역별 주담대 평균 DSR 현황’에 따르면 6대 광역시 주담대 보유 가구의 평균 DSR(신규대출 기준)은 28.83%였으며, 6대 광역시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울산도 27.65%로 정부 규제 비율 40%를 밑돌았다.

신 선임연구원은 “지방 미분양 증가와 자금조달 상 규제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DSR 규제 완화는 DSR 제도의 본래 목적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금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PF사업 정상화와 지역별로 특화된 공급관리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교통망, 병원, 교육 등 인프라 확충과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아 국내 완성차 업체 최초 AI 고객센터 구축

“365일 고객 만족도 높일 것”

기아는 13일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고객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규 도입된 AI 상담사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단순한 문의에는 자동으로 응대한다.

고객 문의 내용을 분석해 최적의 상담원에게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상담원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기아는 또 기

존 12개 사업별로 분산돼있던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080-200-2000’으로 통합했다. 통합 상담 시스템을 통해 단순 문의, 일반 문의, 전문·기술 문의 등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기아 관계자는 “차세대 고객센터를 통해 최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편의점 CU 이달까지 맥주·하이볼 할인 행사

52종, 최대 75%까지

편의점 CU는 “맥주와 하이볼 할인 행사인 ‘치열스페스타’ 행사를 이달 한 달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기온 상승 및 외부활동 증가 추세에 맞춰 맥주와 하이볼 매출이 전월 대비 각각 17.8%, 15.5%씩 증가한 데 따라 준비됐다. 행사에서는 52종의 맥주와 하이볼에 대해 최대 7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CU의 자체 커머스 앱인 ‘포켓CU’에

서 행사 상품을 결제한 후 지정한 편의점에서 원하는 시간에 픽업할 수 있다.

중식 대가 여경래 셰프의 레시피를 적용한 ‘펄리 하이볼’은 75% 할인하며, ‘버드와이저 켄’(500ml·4입) 번들은 기존보다 55%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정환 BGF리테일 온라인커머스팀 팀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며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주류 소비에 보탬이 되고자 온라인 주류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쿠팡, 어린이날 앞두고 ‘어린이날 선물샵’ 운영

캐릭터·인형 등 최대 48% 할인

쿠팡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어린이날 선물샵’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캐릭터·인형·악하놀이 상품부터 어린이(어른+어린이) 취향의 퍼즐·무선조종 자동차까지 4000개 상품을 최대 48% 할인 판매한

다. 쿠팡은 지난해보다 행사 기간을 2주 더 늘려 고객 혜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기획전에서 주목할 상품으로 캐치티니핑 슈팅스타팩트, 헬로카봇 드빌버스트 로봇 장난감, 산리오캐릭터즈 웹툰그리기패드 등을 뽑았다. 와우회원은 5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 2000원까지 추가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확대 허용

정부, 25년만에 출자제한 완화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5%)을 25년 만에 15%로 확대하기로 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5월 26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유지됐왔지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 핀테크 기업에 15%까지 보유 한도를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실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6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8	23	31	35	39	40	24
등위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2,884,087,913				10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9,663,960				69
3	5개 숫자일치	1,633,859				2,942
4	4개 숫자일치	50,000				157,094
5	3개 숫자일치	5,000				2,614,372

현실 맞는 근로시간 제도

산업재해 감축 지원 등

중기중앙회 대선 100대 과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를 향해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책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한국경제는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며 “SME(중소기업) 아니셔티브” 관점에서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 위기를 혁신성장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마련,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 인력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팜테크 산업 육성, 규제 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 합리화 등이 담겼다.

“제조업 부흥” 분야에서는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아젠다로 각각 선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 전담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중소기업 업종별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화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세대계 순환” 분야에서는 공정 거래와 시장 균형, 민생경제 성장 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주요 아젠다로 꼽았다.

/김해나 기자 khn@



새롭게 문 연 광주신세계 ‘삼성스토어’

어는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구매 금액별로 캐쉬백 포인트 증정, 입주·혼수·이사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삼성스토어가 지난 10일 부분 리뉴얼을 마치고 오픈형 매장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삼성스토어

<광주신세계 제공>

미 관세예외 스마트폰·PC업계, 안도의 한숨

“불확실성 완전 해소는 아냐”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제조업체와 당국이 일단 안도하고 있다.

다만 이번 관세 유예 조치가 일시적이고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제기됨에 따라 미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을 공표했다.

중국에 부과한 125%, 그 외 국가에 대한 10%의 상호관세를 이들 품목에는 일단 적용 유예하겠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생산 공정이 없는 삼성 스마트폰은 상호관세에서 일단 자유로워졌지만, 중국에서 90% 가까이 생산하는 애플의 경우는 상황이 모호한 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팬타닐 등 마약 대응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10%+1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제조 스마트폰에 대한 20% 관세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도하는 등 해석도 분분한 상황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